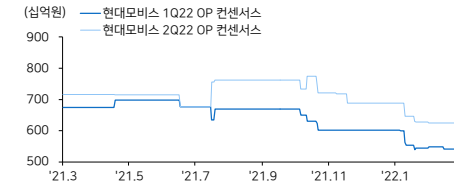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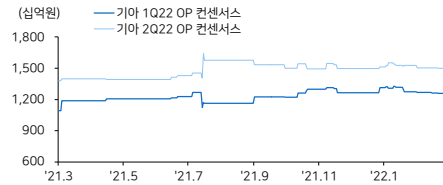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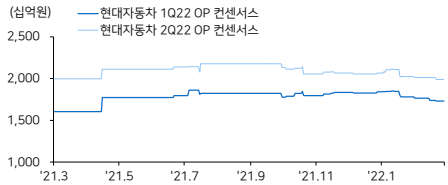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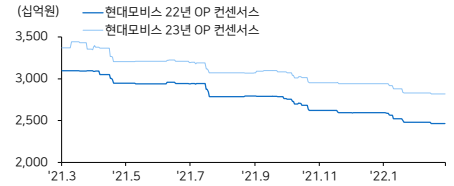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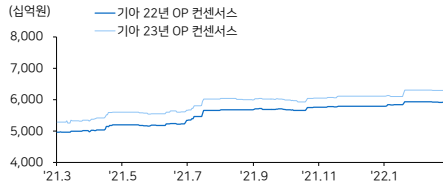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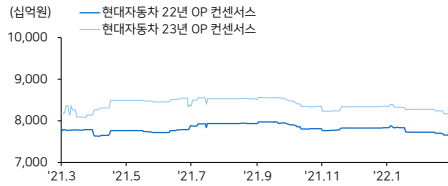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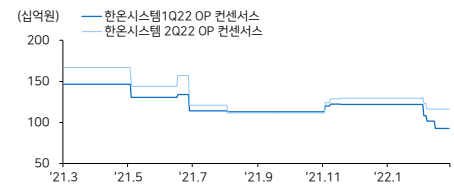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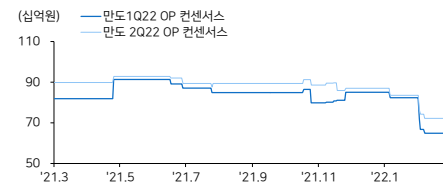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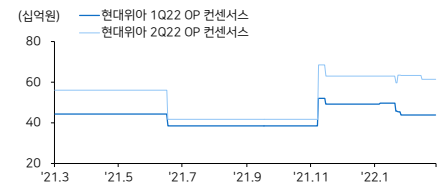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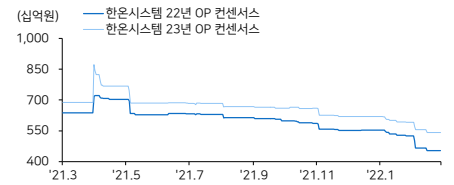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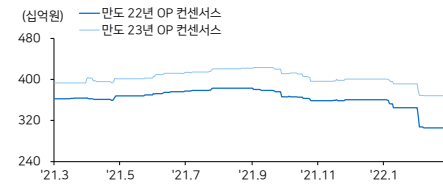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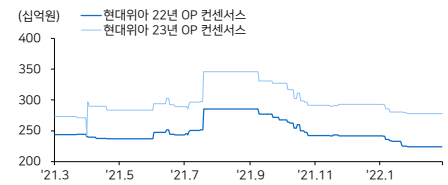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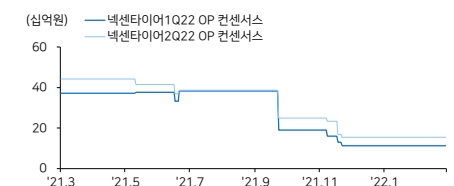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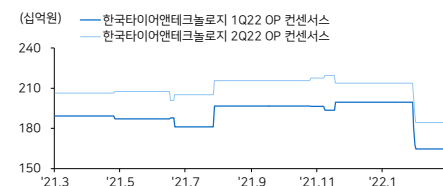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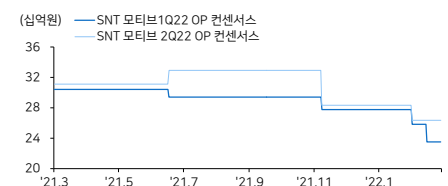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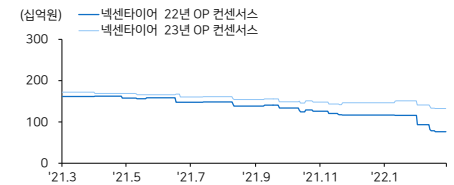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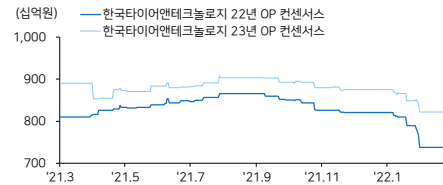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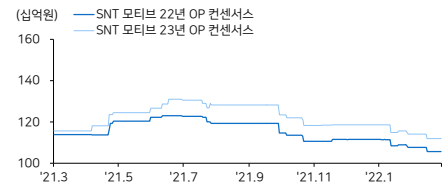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아세안 공략 핵심 기지 인도네시아에 2조 투자... 현지 공장 준공 (머니S)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약 1.9조 원을 투입해 준공한 15만대 규모의 공장으로 인구 6억 명의 아세안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 정익선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핵심 거점이며 아이오닉5 양산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언급함.

<https://bit.ly/34QWHAo>

반도체대란 · 우크라이나 사태에도...고부가가치 수출 급증 (파이낸셜뉴스)

차량용반도체 수급난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도 완성차 생산 · 내수 · 수출 모두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상회함. 신차 설비공사 안료와 생산량 증가 · 전년동월 기저 효과 등이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u0Unpf>

Ukraine war, chip shortage expected to trim global production by more than 5m vehicles (Auto News)

S&P Global Mobility(HIS Markit) 은 올해 자동차 생산량을 500만대 이상 축소시킨 8,160만대, 내년 8,850만대로 전망함. 이는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부족 악화, 중국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공장 자동 중단 등에 기인함.

<https://bit.ly/3KkXxIO>

TuSimple explores sale of China unit after pact with U.S. authorities (Reuters)

중국 자율주행업체 스타트업 TuSimple이 중국 사업을 매각하고 미국시장에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 중. 이는 보안 문제로 중국 사업부 데이터 액세스를 제한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이후 제기된 사안. 매각 희망 가격은 최대 10억달러로 알려졌다.

<https://reut.rs/36oKCsK>

기아 EV6, 대만서 온라인 판매 하자마자 '완판' (THE GURU)

기아는 지난 11일 대만에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EV6 온라인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 1차 사전 예약 물량 300대가 완판 됨. 오는 18일 2차 사전 예약을 받을 것이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각종 상 수상이 인기 요인으로 꼽힘.

<https://bit.ly/3MQOCFO>

'전동화 가속' 폭스바겐... "주행거리 700km 전기차 선보인다" (서울경제)

폭스바겐은 올해 독일 쾰비카우 공장을 전기차 전용시설로 전환하고, 독일 엠덴, 하노버, 미국 채터누가 공장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계획. 지난해 약 27만대의 BEV를 판매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가이던스가 불분명해짐.

<https://bit.ly/3jE0cCq>

Tesla halts work at Shanghai factory for two days amid China COVID curbs (Reuters)

중국이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통행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테슬라 상해공장 생산이 이틀동안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공장에서는 지난 2월 하루 평균 2,018대 차량을 인도함.

<https://reut.rs/364P5Bg>

Lyft to charge 55 cents as fuel surcharge due to rising gas prices (Reuters)

미국 승차공유업체 Lyft는 높아진 휘발유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콜당 55센트의 유료화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며 최소 두 달 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 최근 Uber 역시 45~55센트의 유료화료를 반영함.

<https://reut.rs/3MUEMJH>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